

광산구, 경청·소통으로 시민 중심 행정 구현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 등 소통 창구 운영 접수·검토·처리과정·결과 '시민감동콜' 통해 전 과정 시민에 알려

출연히 나타난 구청장. 예고도, 약속도 없이 차려진 자리. 광산구 시민이엔 어느덧 익숙해진 장면이다. 누구나 지나다 앉아 가슴에 담아뒀던 얘기를 풀어놓는, 조촐한 이 만남의 장이 시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있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민선 8기 1호 결재인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시작으로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에 닿지 않던, 사무실과 책상에서 들 수 없는 시민 목소리를 구정의 한복판으로 끄집어 올려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취임과 동시에 민생 현장을 누빈 박 구청장은 매주 1회 이상 마트, 역, 공원 등 시민의 일상이 있는 현장에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열고 불특정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지난해 초 도입한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010-6529-8114)는 365일 24시간 구청과 관련한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받고 있다. 지난 1년 7개월간 광산구가 받아들인 시민 목소리만 2940건에 달한다.

이 같은 경청·소통의 노력은 광산구에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광산구는 소통 창구를 확대하면서 모든 경청 내용을 '관리카드'로 형태로 데이터화했으며, 접수부터 검토, 처리 과정 및 결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시민감동콜'을 통해 전 과정을 시민에게 알려주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길 위에서 갑자기 만난 구청장에게 건넨 하소연, 절실한 마음으로 구청장에게 보낸 문자 한 통이 실제 더 나은 생활 환경, 꼭 필요했던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지분해 들어가기 꺼려졌던 공중 화장실이 쾌적하게 바뀌었고, 주민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고, 저녁이면 어두워서 불안하던 길도 환하게 밝혀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면접을 앞둔 청년의 목소리는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기존 대학교 졸업생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및 동등학력 소지자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도약' 응시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년의 직통 문자에 광산구는 '청년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지난해에만 76명을 지원했다.

광산구는 언어장애로 불편한 일을 겪어도 행정에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들을 위한 전용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문자에도 화답했다.

장애인 날인 4월 20일 숫자를 딴 언어장애 장애인 소통 채널 '이음번호 0420'을 개설했고, 홀로

향암치료를 받느라 막막하다는 문자를 보낸 시민은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 1호 대상자로 선정돼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또 비어5일시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운영하며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고 있다.

실은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단초가 됐다. 청소년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견에 광산구는 유희공간 조사, 추진위 구성 등을 진행하고, 주민 협조로 무상 임대료를 이끌어 냈다. 이어 광주시 공모사업을 통해 시비를 확보하면서 노래방, 쉼터 등을 갖춘 청소년 자율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올 초 광산구가 본격 착수한 평동저수지 누리길 조성사업, 비어5 상안마을 하수관로 설치,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한 쌍암공원 무궁화공원 조성 등도 시민 목소리가 '출발점'이었다.

삶의 현장을 고집하며 끈질기게 듣고 또 듣는 '길 위에 구청장'의 목심이 '말해도 달라지겠냐'는 불신을 지우고, 시민 스스로 구정의 주인임을 깨닫고, 경험하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선 8기 광산구의 지난 1년 7개월은 유권자인 시민이 광산구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세기는 시간이었다"며 "늘 시민을 중심에 두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시민이 주인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진보당 원내대표단 대표의원 국강현·부대표 김은정

광산구의회 진보당이 제9대 광산구의회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광산구의회 진보당은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3명의 제9대 광산구의회 원내대표단을 구성하고, 대표의원으로 4인 의원인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사진)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대표에는 재선인 김은정 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대변인에는 초선인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어5·신가동·신창동)이 선임됐다.

원내대표단은 일단 2022년 7월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상정되지 않고 있는 '광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며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당별로 원내대표를 두고 참여하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며 추진 방향을 정하는 등 향후 광산구의회 운영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강현 대표의원은 "진보당의 원내대표단 구성은 광주시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최대한 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자 선연적 의미를 갖는다"며 "거대 양당의 걸차레 말로만 그치고 있는 다량제 정치 개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통과에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장학회, 17년 전 가입 펀드 최고 23% 수익...매년 장학생 지원

(재)광산장학회가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17년 전 가입한 펀드가 수익을 내면서, 효자 펀드로 거듭나고 있다.

14일 (재)광산장학회에 따르면 2007년 장학기금 이자 수익 확충 방안으로 40년 만기의 모 펀드에 3억 9410만원을 투자했다.

당시 10여개 펀드에 분산 투자한 장학기금 가운데 5개 펀드는 최고 23.4%~최저 2.0%의 수익률을 거둔 반면 나머지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현재 펀드 배당액으로 매입 금액의 62% 수준인 2억 4000만원을 배당받은 상태다.

이는 은행권의 이자수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일부에서 우려했던 장학기금 원금 손실 부분도 완전 불식됐다.

특히 해당 펀드회사는 장학기금 펀드 투자를 놓고 원금 손실 관련 문제가 일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매년 관내 장학생 23명에게 34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해까지 3억 6400만 원의 장학금을 별도로 광산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등 장학회 운영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재)광산장학회 관계자는 "우려됐던 펀드 투자에 대한 원금 손실 부분에 이번엔 완전히 해소된 만큼 장학사업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경로당 5개 권역별 매월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작은 복지관' 노인복지정책 정비 1~3세대 안부인사나누기 등 행사

광주 광산구가 관내 경로당을 5개 권역별로 구분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개념의 '작은 복지관'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노인 복지정책을 펼쳐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관내 99개소의 경로당을 지역 특성에 맞게 5개 권역으로 구분한 '작은 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이어 2년째 운영되고 있는 '작은 복지관'은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1세대~3세대) 3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1~3세대 안부인사 나누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광산구 봉정마을복지관(평동)과 더하기센터(본량)에서 열린 '복은해를 보내고 새해 명절맞이 1~3세대 안부인사 나누기' 행사는 평동어린이집과 놀사랑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마을복지관을 찾아 세배인사, 덕담나누기, 율동 공연을 선보

이는 등 함께 즐기면서 세대를 초월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달에는 더불어라노인복지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동아리 회원들이 마을복지관을 찾아가 이용 회원들과 함께 재활용 자원을 이용한 업사이클링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앞서 광산구는 관내 어르신들의 또 다른 복지 정책으로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주 제기해 온 '좌식 식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 상반기 중 총 390여 개 광산구 전체 경로당에 입식 식탁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광산구는 또 올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을 기존 월 16만 6000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고, 광주에서 유일하게 시작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사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난해보다 809개 늘어난(114% 증가) 6607개 노인 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니어노인학대지킴이', 'ESG(환경, 사회, 지

배구조)탄소제로지킴이', 경로당 운영 도우미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신규인자리 확보를 통한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로당 보조금 정산 등 행정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경로당 도우미 40여 명을 선발해 각 경로당에 배치하는 한편 효행 문화를 장려하고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수축하'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이내의 장수 축하 물품을 지원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 어르신이 존중받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광산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고교 원거리 배정·과밀학급 악화 김태완 광산구의장 우려 표명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최근 진행된 제285회 임시회에서 폐회사를 통해 광산구 고교 원거리 배정과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올해 광주지역 일반고 배정 결과 약 10%가 타 자치구 학교로 배정됐는데 대부분이 광산구 학생들"이라며 "특히 선운중학교는 졸업생의 80%가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는 시교육청의 잘못된 교육정책 결과물로, 무엇보다 해결의 의지조차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시교육청이 2027년 광산구 신설 예정과 지역 학생인구 감소를 이유로 광산구 고교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광산구 학생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광산구 학교는 광주 평균보다 13명 많은 과밀학급, 컨테이너 교실, 운동장 없는 학교가 됐고, 학생들은 타 자치구의 사립고 폐교를 막기 위한 희생양이 됐다"며 "시교육청의 외면과 회피 속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